

무등일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오늘 인천서 개막

고장의 명예 걸고 최고의 기량 뽐낸다

전국 17개 시·도 2만5천여 명 참가
광주·전남 각각 13·12위 이상 목표
체조 양학선 등 올림픽 스타 총출동

‘마린 보이’ 박태환, ‘민들레조 요정’ 손연재, ‘도미의 신’ 양학선... 이들은 들어도 현레는 스포츠 스타들이 인천 전국체전에서 모인다.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18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2만4천537명(선수 1만8천587명, 임원 6천950명)이 참여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44개 정식종목과 탁구, 수상스키 등 2개 시범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광주·전남은 지난 전국대회에서 각각 13·12위를 기록했다.

올해 대회에서 광주·전남은 이번 대회에 높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45개 종목(경식40, 시범3)에 선수 989명, 임원 259명 등 총 1천248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광주는 금메달 30개 이상을 목표로 잡고 단체종목의 선전으로 순위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복싱, 씨름, 유도, 궁도, 검도, 사격, 펜싱, 조정, 롤러, 요트, 보디빌딩, 우슈공부, 수중, 스포츠볼 등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첫 금메달은 태권도 여대부-49kg급 김미소(조선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45개 종목(정식 41, 시범 4) 173종별 중 156종별에 1천863명(선수 1천238명, 임원 625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켰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32개 이상의 금메달을 확보해 최대 종합 11위까지 바라보고 있다.

전남은 근소한 득점차로 종합, 전북, 대전과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기량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열릴 장소에서 치러질지 걱정된다.

내년에 아시아 무대를 밟을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마린 총력을 선보일 예정이라서 주목된다.

기초지 인천의 간판스타인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은 2008년 대회 이후 5년 만에 치전에 나선다.

박태환은 자기 이름이 붙은 ‘박태환 수영장’에서 자유형 200m, 기원 400m, 800m, 1000m, 400m, 자유형 400m 등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지난 평壤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사력스타 진중호(부산)는 남자 일반부 50m 곤충, 공기곤충 개인전, 단체전에 출전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등극한 이태형(경기)은 전종오와 같은 종목에서 정상에 도전한다.

필름스타 양학선(광주)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새 필름기를 체전에서 선보일지도 관심사다.

양학선은 작년 올림픽에 이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미 금메달을 획득, 세계무대 2연패를 이뤘다.

라들체조 스타 손연재(서울)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체전 여고부 3연패를 이룬 뒤 올해 일반부 정상에 도전한다.

손연재의 연기는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체육관에서 관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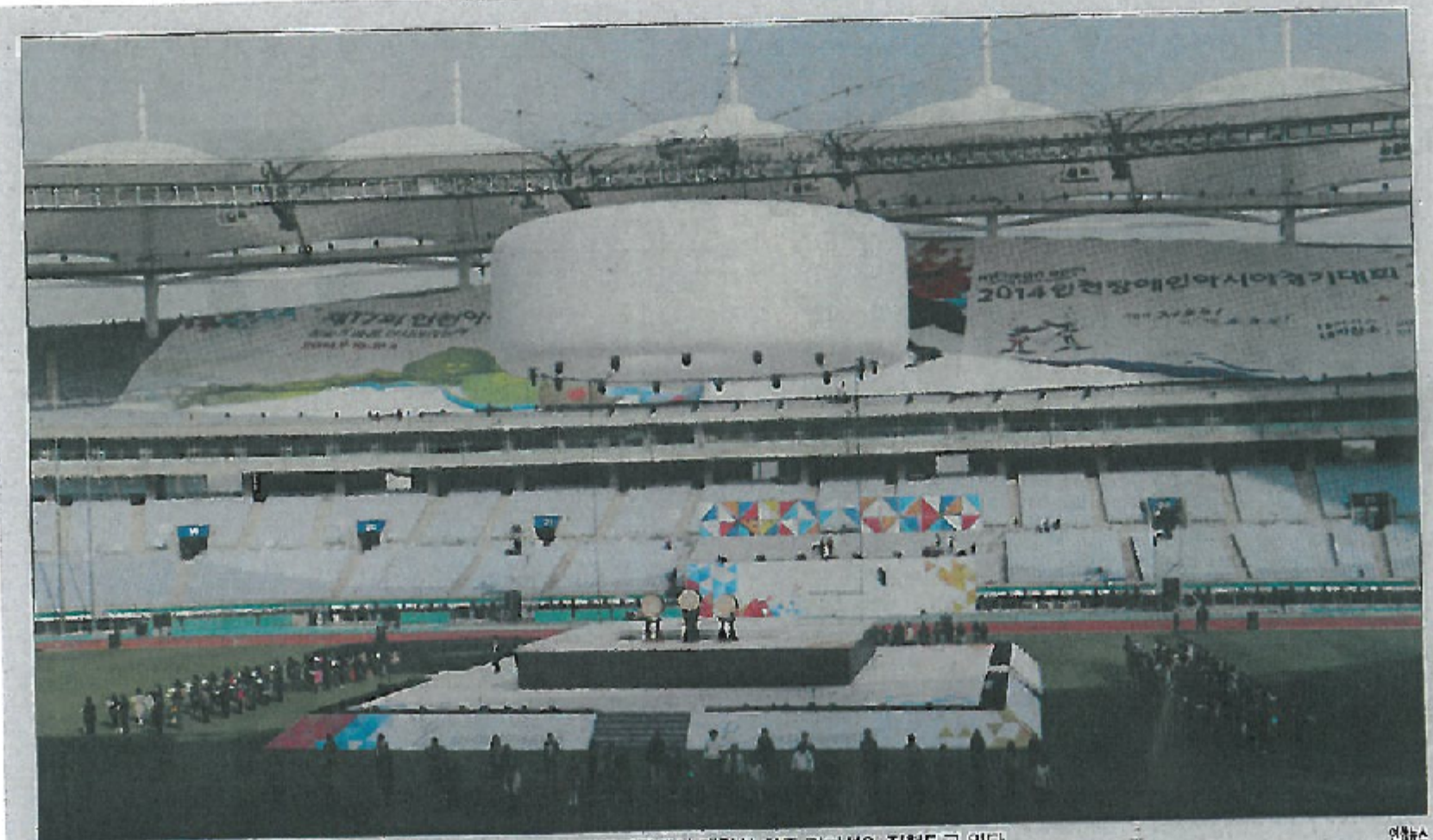
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 기보배(광주), 남자 첼피인 오진형(제주)도 골드를 뽐내 소속 시도를 빛내겠다는 의지가 뜨겁다.

여자 일반부 플라이옴에서는 배우로 활동하는 복서 이시영(인천)이 처음으로 치전에 나와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지훈기자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선수단이 개막식 여형연습을 하고 있다. 박지훈기자

광남일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개막식 여형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안철수

제94회 전국체전 오늘 개막

인천서 '7일 열전'... 광주전남 2890명 참가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18일 인천에서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올해로 94회째를 맞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과 재외동포 등 3만여명이 참가한다.

‘악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10분 문학경기장에서 항구도시의 역동성을 담은 각종 퍼포먼스로 치러진다.

인천은 이번 체전을 통해 한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아시안 차게 준비하는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체전에서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스포츠클라이밍과 펜스스카츠(불등탄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탁구와 수상스키는 시범종목으로 선정돼 총 49개 종목에 1만 8387명의 선수들이 경쟁한다.

지남해와 같은 전국 13위를 목표로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은 클라이밍과 세팍타크로, 수상스키를 제외한 43개 종목에 1227명(본부인원 60, 감독 66, 코치 133, 선수 968)이 참가한다. 부단장으로는 고동우 453명(남 285, 여 148), 대학부 148명(남 104, 여 44), 일반부 377명(남 258, 여 119) 등이다.

대전 울산 등과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는 육상과 태권도 레슬링 양궁 등에서 예상대로 선전

하겠다며 지남해와 같은 성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5개 종목 173개 종별 가운데 155종별에서 선수 1238명과 임원 625명 등 186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전남도 체육회도 1차 목표를 지난 해 순위인 12위를 유지하는데 두고 있으며 내심 2011년 순위인 종합 11위도 노리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 2008년 89회전을 개최한 이후 지난 90·91체전에서 연속 종합 10위를 기록했던 성적은 아나라도 이어 바깥기는 성적을 올려 남도인의 기상을 어필하는 화폭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광주시 체육회 박재현 사무처장은 ‘전라 중독에서 대전이 불리하지만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싸워

준다면 목표인 13위 달성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 객관적인 전력은 경기와 서울, 인천이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경북·강남·충남·부산이 상위권에서 각축전을 펼친다. 또 강원·대구·충북·전북·전남이 중위권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광주와 대전, 울산이 뒤를 잇고 신생팀 세종과 제주를 여전한 하위권에 머무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2002년 제주에서 열린 과화부터 직전 대구 대회까지 11년 연속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인자로 밀려난 지열이 이번에는 경기도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인천이 개최지의 이점을 안고 이번을 일으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경석 기자 plus37@

광주매일신문

고향의 명예를 걸고 스포츠 스타들 총출동

· 양학선·기보배·손연재 등 내년 AG 기량 점검
광주·전남 '전력 상승'...46개 종목 7일간 열전



전국 엘리트 체육인의 축제 한마당인 제94 회 전국체육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18일 오후 5시 10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과 재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전체 종목은 정식종목 44개와 태권, 수상스키 등 시범종목 2개를 더해 46종목이다. 이번 제전에는 인공암벽을 동반하는 스포츠클라이밍과 댄스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특히 세계적인 기량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대거 출전하는 만큼 수준 높은 명승부가 기대된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인천대표로 광주·전남에서는 기보배(양궁)와 양학선(체조) 등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나서 대회를 빛낼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은 모두 지난해와 같은 13위와 12위를 각각 목표로 잡고 있다.



양학선 기보배 박태환 손연재

메달을 수확할 경우 광주가 목표로 하는 13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득점 2만6000여점을 목표로 잡은 광주는 43개 종목에 선수·임원 1천22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영크보이 이용대는 지난달 30일 조건우와 호흡을 맞춘 개인복식 사전경기를 통해 은메달을 전남에 안기면서 체전 열기를 뜨겁게 했다.

전남은 태권도, 육상, 수영, 역도, 사격, 요트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내다보고 있다.

태권도에서는 전남체고 쌍둥이 형제인 고희재(-54kg)·고혁재(-58kg)가 금빛 반차기를 선보이고 육상에서 백승호가 5,000m와 1만m

에서 2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여자 일반부 김민도 경쟁상대가 없어 원만경기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또 유도 김성연(-70kg),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이지연(66kg) 등도 1위 수성을 자신하고 있다. 수영 박선관은 평영 100·200m에서 2관왕, 나주시청 사이클 여일반부 단체스프린트, 볼링 최복음 등도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득점 2만9000~3만3000점을 획득해 지난해 순위인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은 46개 종목 173종별 중 155종별에 1천663명의 선수단을 출전해 기량을 뽐낸다.

/김기식 기자 p21@kdaily.com

광주는 런던올림픽 스타들이 출격대기중이다. 우선 양궁의 기보배는 60·70m에서 2관왕을 목표로 금빛 과녁을 정조준하고 있다. 체조의 양학선도 화려한 금빛 착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육상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간판 김덕현도 금메달 2개를 목표로 출전한다. 전국 최강의 명진고 소프트볼도 이번제전에서 처음으로 고등부가 신설되면서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다. 효자종목인 태권도에서도 남자부 -74kg급 김유진을 비롯, 4개 이상의 금메달이 예상되고 있다. 또 근대5종과 스키 등 8개 종목에서 성적 상승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전을 앞두고 사이클, 카누, 수중 펜수영 등 3개 종목 3개팀 12명의 선수를 보강해 전력을 강화시켰다.

광주대(농구), 서석고(검도), 동성고(야구) 등에서도 뜻밖의 금

광주매일신문

“후회없는 경기력 발휘...11위 탈환 최선”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지나해 성적인 종합 12위가 목표지만 11위 탈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2개월째 접어든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국내 엘리트체육인들의 큰잔치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 46개 종목 173종별 중 155종별에 1천663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전남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순위인 종합 12위를 유지한다는 1차 목표 속에 전지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 등 종목별로 80여 일간 강도 높은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또 9월 중순부터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선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박 처장은 “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스포츠맨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그동안 정성스레 쏟아 부었던 열정이 한 치의 후회 없는 경기력 발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기자 p21@kdaily.com

전남매일

“남도인의 기백 복원에 최선”

전남선수단 총감독 박내영 사무처장

“종합 11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전남도체육회 수장으로 취임한 전남도체육회 총감독인 박내영 사무처장의 인천제전 출사표다.

전남선수단은 이번제전에 46개 종목 1,238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지난 2011년 달성했던 종합순위 11위를 탈환한다는 각오다.

전남은 지난 90~91회 제전에서 2년 연속 거뒀던 종합 10위는 차지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성적을 거둬 남도인의 기상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수단은 전지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으로 80여일간 강도 높은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제전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을 위한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처장은 “전남은 이번 제전서 3만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쟁지역인 충북과 전북 그리고 우수선수들이 영입한 대전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남은 변수 발생이 큰 일부 기록종목(볼링·근대5종·승마·롤러·골프)의 신진과 득점력이 큰 단체종목(수구·축구·탁구·배구·검도) 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처장은 “선수단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후회없는 경기를 치러주길 바란다”며 “200만 도민의 여망과 성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함께 뛰자 세계로!... 전국체전 오늘 개막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1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다.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식전행사(경동전자가 후원) 모습이다. 예행연습에서 인천의 비상을 상징하는 미디어 크래프트(Media Craft)가 떠오르고 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등 17개 시·도 대표 3만명 참가 열전 돌입 도마 양학선·양궁 기보배·펜싱 이우리 등 금빛 기대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열전의 막을 연다.

올해로 94회째를 맞은 체전은 18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펼쳐진다.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10분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의 역동성을 자랑하는 주제를 담은 각종 퍼포먼스로 함께 상연이게 치러진다.

'여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과 재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광주는 43개 종목에 선수 963명과 임원 259명, 전남은 46개 종목에 선수 1238명과 임원 425명이 출전해 열전을 펼친다.

◇국내 정상급 선수 대거 출전=이번 체전 전체종목은 스포츠 클라이밍과 펜싱, 스포츠 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정식종

목 44개와 사범종목 2개(태권·수상스키)를 더해 46개 종목이다.

이번 체전은 매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릴 장소에서 리허설처럼 치러진다. 매년에 아시아 무대를 밟은 양학선(한국체대·기체체조)과 기보배(광주시청·양궁), 펜싱 이우리(전남도청)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대거 출전한다.

도마스타 양학선(광주)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새 종목인 '양학선'을 체전에서 선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다. 양궁과 여자 양궁 2관왕 기보배(광주)도 금빛 미래를 거둔다.

광주는 박태경(광주시청·110m 허들), 김덕현(···멀리뛰기), 이성(···높이뛰기) 등 육상을 비롯해 수영 김지현(하이로리아·배영 50m), 리슬린 정영호(남부청·자유형 66kg급), 태권도 김유진(조선대·74kg급), 우슈공부 장동석(광주시체육회·태극권), 펜싱 영 김태균(광주시체육회·호흡점령 100m) 등이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역시 육상 박승호(삼성전자·5000·12km), 임반년지기 김민(목포시청), 수영 박선과(한국체대, 평영 100·200m), 사이클 다주시경 단체 스포르츠, 조정 고예령·신지혜

(장성·동향고·부다페어), 볼링 최복음(광양 시청·다산초), 요트 김태영·윤현호(여수 시청·국체 470급), 근대5종 최호진(전남도청) 등의 우승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색 참가자 화제=이 밖에도 쌍둥이인 소프트볼 실가는 실다는(광주 명진고 3년) 형제, 사격 고은·고은석(전남체고 3년) 남매를 비롯해 부부, 부자, 누나간 등 이색 출전자들이 눈길을 끈다.

전남산악연맹 정만선·조수경 부부는 스포츠 클라이밍(남이도)과 일반 등산(동호인 종목)에 출전한다. 우슈공부 장동석 전무는 아들 공호와 부자간에 지도자와 선수로 각각 나선다.

이번 대회에서 육상 박태경은 5연패, 수영 김지현은 4연패, 도마 양학선은 3연패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태경 광주선수단 총감독(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김지현 양상을 위해 열과 실을 다해 훈련에 임해 왔다. 갖고 다룬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광주체육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전남선수단 총감독(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쌓아왔던 열정이 한치의 후회없는 경기력 발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체전에서 광주는 종합상위 18위(금38, 은 37, 동 54)를, 전남은 12위(금 38, 은 43, 동 57)를 각각 차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일보

“선인의 경쟁으로 광주·전남 명예 드높일 것”

‘도마의 신’ 양학선, ‘양궁 여왕’ 기보배, ‘마린보이’ 박태환,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인천에 총출동한다.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를 구호로 한 제 9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그 무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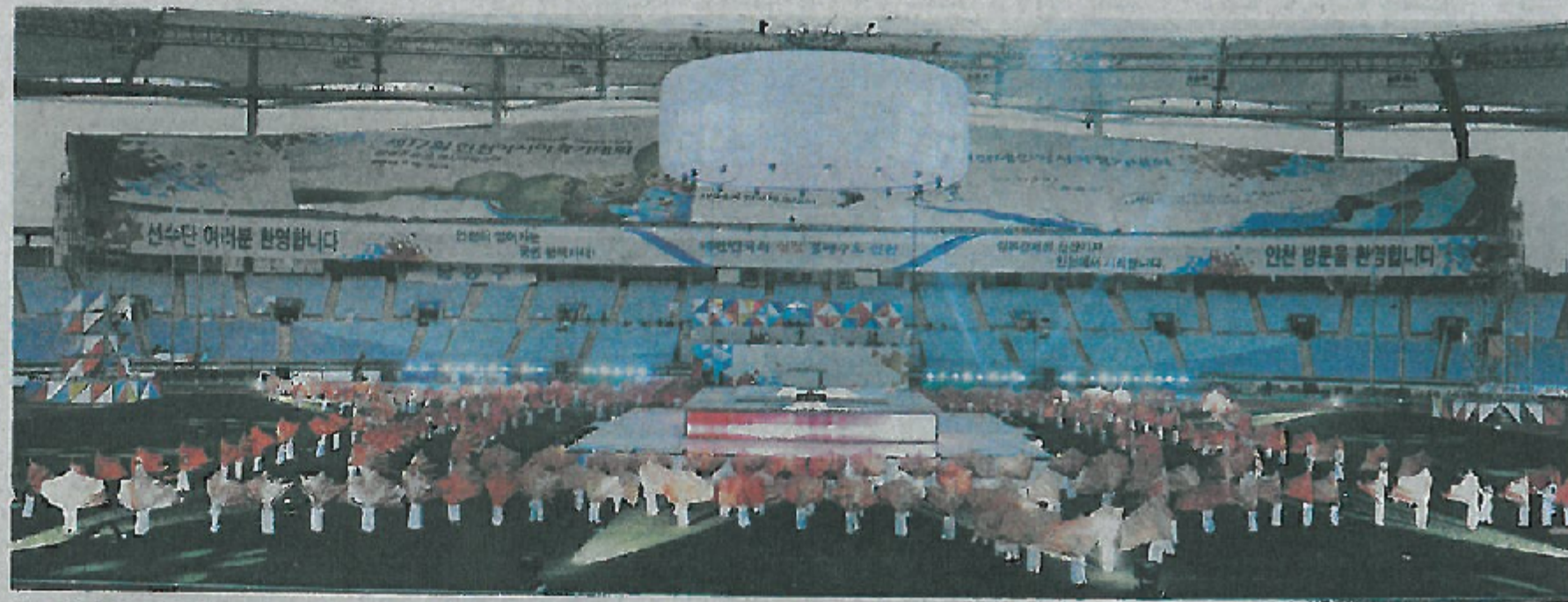
올해 전국체전은 1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갖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24일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4524명(선수 1만8537명·임원 698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6개 종목(정식 44·시범 2)에서 열띤 매달 경쟁을 펼친다.

광주는 물론, 제파라크로, 수상스키 등복을 제외한 43개 종목에 1227명(선수 968명·임원 259명)이 참가하고, 전남은 46개 종목 1663명(선수 1238명·임원 425명)이 출전해 고향의 명예를 위해 댈다. 광주와 전남은 모두 지난해와 같은 18위와 12위를 각각 목표로 잡았다.

●광주·전남 인천아시아인 게임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6월 열리는 인천 아시아인 게임을 향한 열점 무대 경기가 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스포츠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전의 기량을 점검한다. 세계 선수권 대회 2연패인 양학선(21·한국체대 3)을 비롯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관왕 기보배(25·광주시청), 한국 육상 합리투기의 간판 김택현(28·광주시청)은 광주 마크를 가슴에 달고 댈다. ‘양궁 보이’ 이종민(25·삼성전기)은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양학선은 주종목인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마루운동에서 동메달을 추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신의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를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기호일보 제공

오늘 인천서 전국체전 팡파르

기보배·양학선·손연재 등 스포츠 스타 총출동 광주 13위·전남 12위 목표

이름이 붙은 선기술 ‘양학선’을 이번 대회에서 선보일지 관심이 높다. 기보배도 개막 이튿날인 19일 오전 양궁 여자 일반부 60·70m 경기에 출전해 2관왕에 도전한다. 기보배는 최근 터키에서 열린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김택현(28·광주시청)은 남자 일반부 합리투기와 세단투기에서 2관왕을 노린다. 이종민은 지난해 30일 사천경기

로 진행된 비도민턴 개인복식에서 조선 우와 짝을 이뤄 동메달을 획득했다.

●‘마린보이’ 박태환 인천대표

광주·전남뿐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들도 저마다의 고전을 위해 이번 체전에 출전한다. 개최지 인천의 대표로 나서는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은 2008년 대회 이후 5년 만에 체전에 나선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400m, 계영 400m·800m, 혼계영 400m 등 5개 종목에 출전해 5관왕에 도전한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사작스나 진종오(부산)는 남자 일반부 50m 권총, 공기권총 개인전, 단체전에 출전한다. 리듬체조의 손연재(서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여고부

3연패를 이룬 뒤 올해는 일반부에 출전, 정장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손연재의 연기는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체육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기보배의 단체 오륜회(22·연마제철)은 제주 대표로 출전해 골드 퍼펙트를 노린다. 배우로 활동하는 복서 이시영(인천)은 처음으로 체전 여자 일반부 불라이더에 출전한다.

●광주·전남 순위 하위락 막자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 유지를 목표로 세웠다. 종합득점 2만6000여점을 목표로 잡은 광주는 근대5종과 수구, 체조, 양궁 등 8개 종목에서 성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올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이클, 카누, 수중 펜싱 등 3개 종목 3개팀 12명의 선수를 보강하는 등 전력 강화에 힘썼다. 지난해 노메달에 그쳤던 서서기(전남 남교부), 광주 동성고(아구

고등부), 광주대(양구 여일반) 등이 메달을 수확할 경우 광주의 13위 유지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2만2000~2만6000점대가 예상되는 대전과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2만9000~3만3000점을 획득해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목표로 한다. 7위권 전역의 인천이 개최지 가산점을 받고 2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중·하위권이 전남으로선 서늘·경기 2강 체제 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 약간 우세의 전북이 충북과 전북이 중·경기 편성에 팀 단위를 통한 불꽃전 중반을 해소하고 최우수급 선수를 영입해 순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전남은 중·경로로 전지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 등 강도 높은 실전 대비를 했다. 지난해 노메달에 그쳤던 서서기(전남 남교부), 광주 동성고(아구

“광주체육 위상·시민 자긍심 높일 것”

박재현 시체육회 사무처장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전남 선수단 총감독을 맡은 박재현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종합득점 2만4410점으로 원정 출전 8년 만에 한 단계 순위 상승한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 150만 광주·전남 시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동안 길고 뒤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광주체육의 위상과 광주·전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다시·도 선수들과 우정과

“스포츠맨십 발휘 타 시·도에 귀감되겠다”

제94회 전국체전 광주·전남 총감독 출사표



친선을 다지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경쟁상대 팀과 경기를 펼쳐 이번 체전에 전 국민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동원기자 chidoon@kbs.com

박내영 도체육회 사무처장

및 현지 적응훈련 등 중·경로로 80여일 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경기 당일 전일 선 조율을 위해 선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그동안 끝이없는 열정이 추위 없는 경기력 발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선수단의 또 다른 목표는 경쟁급별한 스포츠맨십 구현”이라며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단만 ‘하연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타 시·도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동원기자

전남매일

인천 전국 체전 오늘 팡파레



일주일 동안 열전 돌입... 24일 폐막 광주 14위·전남 11위 달성 총력전 박태정 5연패... ‘양학선 기술’ 관심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94회를 맞는 체전은 18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체전은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릴 장소에서 치열한 경쟁이 치러지며 44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종목(수상스키, 태권) 등 총 46개 종목에서 선수 2만2,000여명, 임원 8,000여명이 참가한다.

광주는 물론, 제파라크로, 수상스키를 제외한 43개 종목에 총 1,227명(임원 259명·선수 968명)이 출전하고, 전남은 46개 종목에 1,663명(임원 425명·선수 1,238명)이 출전한다. 광주는 14위, 전남은 11위 목표다.

◇광주 11개 종목 ‘금’ 20개 예상

인천체전에서 광주는 지난해와 비슷한 2만6,000여점 획득, 종합순위 1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메달수는 총 116개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의 금메달 예상은 11개종목 20개.

육상 5·수영 1·사이클 1·체조 2·펜싱 1·태권도 4·근대5종 1·보디빌딩 1·우슈 2·펜싱 1·소프트볼 1개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 있는 육상에선 여고부 400m서 광주체고 한영

미(2년)와 ▲남자일반부 110mH 광주시청 박태경 ▲팔리워기·세단뛰기서 2관왕을 노리는 김택현 ▲높이뛰기 이진 등이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은 여자일반부 50m서 김지현(하이코리아) ▲사이클은 남자일반부 4km 단거리 출발 박성배·서준웅·연세성·홍지민(국민체육진흥공단) ▲체조는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 ▲태권도는 남대부 -74kg의 김유진(조선대)·남자일반부 -63kg의 김제현(가천대)·여대부 -49kg 김미소(조선대)·여일반부 -53kg 정유리(광주체고) ▲근대5종은 남자일반부 4종단체 이종현·윤일모·전상훈(광주체고) ▲보디빌딩은 웬터급 김형찬(광주체육회) ▲우슈 중무는 남고부 태극권 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남일반 태극권 장용호(광주체육회) ▲펜싱은 남자일반부 호출점영 100m 김태원(광주체육회) 등이다.

이 가운데 육상 박태경은 5연패 여부가 관건이고, 수영 김지현과 체조 양학선은 4연패와 3연패를 노리고 있다.

양학선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세필승기를 체전에서 선보일지 관심사다. 양학선은 지난해 올림픽에 이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 금메달을 획득, 세계부대 2연패를 이뤘다. 구기종목 단체전에선 유일하게 여고

부 소프트볼의 명진고가 우승이 유력시된다.

이밖에 은메달은 육상 등 13개 종목서 29개, 동메달은 유도 등 16개 종목 67개를 예상하고 있다.

광주의 첫 금메달은 19일 오전 9시에 치러지는 여대부 태권도 49kg급에 출전할 김미소다.

이어 오후 2시 보디빌딩서 김형찬과 우슈중무 정종호가 승전보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유독 상풍이 선수들이 많이 참가한다.

육상 400m와 거주에 참가하는 언니 홍다미(조선대)와, 세단뛰기의 동생 홍다예(조선대)가 출전한다. 테니스에선 이현욱·이혜선(삼립고)·소프트볼은 전가은·전다은, 핸드볼은 남공진·남공준(조대부고) 등이 이색참가자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체전서 2만6,000여점을 획득해 17개 시·도 중 종합 13위에 올랐지만 올해 체전서는 비슷한 점수로 13~14위권으로 예상된다”며 “순위 경쟁서 대전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전망했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체전서 획득한 2만8,471점보다 올해 전력이 많이 보장돼 3만점 이상을 획득, 1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1~13위까지 전력이 엇비슷한 충북과 전북 그리고 대전의 결과 따라 순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3만점 이상 획득 11위 목표 전남은 3만점 이상을 획득해 종합 11위가 목표다.

예상되는 메달은 금 32·은 42·동 100개다. 고등부 83·대일반부 91개다. 육상에선 5개의 금메달이 예상된다. 남고 허버턴까지 우승한(전남

체고) ▲여고 400m 이하영 ▲높이뛰기 김은정 ▲남자 일반 5,000m·1만 m 박승호(삼정전자) ▲여자 일반 원반던지기 김민(독포지청) 등이다.

수영에선 남자 일반 배영 50m·100m서 박선관(한체대)이 2관왕을 노린다.

사이클은 남자 일반 이주현(금성고)이 24km포인트 레이스서 유력시되며 나주시청 단차스프린터서도 금빛 날개가 기대된다.

역도는 남고부 이인우(완도수산고)와 이양재(완도고)가 각각 용상 69kg급과 105kg급서 우승이 유력시된다.

양궁에선 여고부 70m서 최미선(전남체고) ▲시력은 남자 일반 더블트랩서 정문준(상무) ▲조정엔 여고부 쿼드라플스킬·부타페이 송복서고영·신지혜(동북고) ▲불꽃은 마스터송복서 최복록(광양지청) ▲요트는 국지 470급의 김대영·윤현희(여수지청) ▲근대5종은 최호진(전남도청) ▲타구는 남자일반 스누커종목서 장호준(영광리서빌라)는 ▲레슬링 고등부는 F-69kg급 김성복(전남체고)·F-63kg 송기정(함평고)·대학부 F-66kg 문희승(원광대)·C-66kg 이지연(영인대) 씨름은 대학부 장사남 정창조(세한대)·일반부 송사남 일대현(한대교과리서빌라) ▲유도는 여대부 -70kg 김성연(영인대) ▲태권도는 남고부 -54kg 고호재(전남체고)·남자일반 -58kg 이길수(한국가스공사)·여대부 -67kg 서소영(영인대) 등이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체전서 획득한 2만8,471점보다 올해 전력이 많이 보장돼 3만점 이상을 획득, 1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1~13위까지 전력이 엇비슷한 충북과 전북 그리고 대전의 결과 따라 순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